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8월 31일
(월요일)

동북일보 5면

건의안 제안설명

화재 취약지역 미니소방서 설치 건의

강 선 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강선경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문수 의원이 발의하고 강선경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한 『골목길과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지역 미니소방서 설치 건의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제안 설명에 나선 강선경 의원은 “화재는 초기 대응의 신속함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 강선경 의원.

기 때문에 소방차의 빠른 진입과 조기 진입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

지만, 전국적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 1,600여 곳에 달하며 이 중 267곳은 아예 소방차의 접근조차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한다. 특히 서울시는 1,600개 지역 가운데 29.6%인 473곳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인데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이 많고 타 지역보다 인구밀도가 높아 주거지역 내에서 화재 초기진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였다.

특히 “강북구는 주택과 빌라 밀집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주차 문제와 좁은 이면도로 등으로 화재 발

생시 초동대처가 어려워 작은 불이 큰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방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초기 진압을 위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의 보급률을 높여 화재 초기 대응능력과 자율적 대응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강선경 의원은 강북구의회에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니소방서를 설치해 안전한 강북구,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만들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박은주 기자>

서울포스트 4면

화재 취약지역 미니소방서 설치 건의안 통과



강북구의회 강선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제안 설명에 나선 ‘화재 취약지역 미니소방서 설치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이번 건의안은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화재 발생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니소방서를 설치해 안전한 강북구,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만들기를 건의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강북구는 주택과 빌라 밀집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주차 문제와 좁은 이면도로 등으로 화재 발생시 초동대처가 어려워 작은 불이 큰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며 “이러

한 소방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초기 진압을 위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의 보급률을 높여 화재 초기 대응능력과 자율적 대응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 1,600여 곳에 달하며 이 중 267곳은 아예 소방차의 접근조차 불가능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는 1,600개 지역 가운데 29.6%인 473곳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인데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이 많고 타 지역보다 인구밀도가 높아 주거지역 내에서 화재 초기진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날 의원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재 취약지역 미니소방서 설치 건의안

강북구의회 본회의 통과

강선경 의원 “화재 발생시 쉽게 사용해야”



강선경 의원

강북구의회 강선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제안설명에 나선 ‘화재 취약지역 미니소방서 설치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이번 건의안은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화재 발생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니소방서를 설치해 안전한 강북구,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만들기를 건의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강북구는 주택과 빌라 밀집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주차 문제와 좁은 이면도로 등으로 화재 발생시 초동대처가 어려워 작은 불이 큰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며 “이러한 소방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초기 진압을 위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의 보급률을 높여 화재 초기 대응능력과 자율적 대응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 1,600여 곳에 달하며 이 중 267곳은 아예 소방차의 접근조차 불가능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는 1,600개 지역 가운데 29.6%인 473곳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인데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이 많고 타 지역보다 인구밀도가 높아 주거지역 내에서 화재 초기진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날 의원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